

사설

총무원장 선거 여법하게

조직·돈·흑색 선전...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불교계의 선거 풍토도 이러한 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 되었다. 출세권이 오히려 세간에 오염된 경우라 하겠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 선거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럴 때마다 많은 불자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이 된다고 한다. 그동안 총무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일이 떠올라지기 때문이다. 부디 이런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화합을 해치는 어떤 행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살인자 알콜리 마라와 당신의 생명을 위해를 가한 데바닷따마저 포용하면서도 화합을 해치는 사람에게

는 단호한 꾸짖음을 내렸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물밑에서 세몰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이다.

둘째, 합리적 정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전종도에 제시하라는 것이다. 비록 재가 신도에게는 선거권이 제한돼 있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구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은 여론을 살피고 투표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새 총무원장은 대중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그러한 자질을 검증하는 대중공사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종권 다툼이 불심을 멎게 해서는 안 된다.

北사찰 단청불사 지원 환영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북한 사찰 단청불사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북한의 사찰 9곳을 직접 살펴보고 온 한 단청장에 의하면 불상들은 한결같이 시꺼멓게 변색됐고, 보수한 사찰의 페인트도 대부분 짙어 벗겨져 있었으며, 새로 보수하거나 지은 사찰 대웅전 벽에는 아예 벽화가 없다고 전했다. 또 북한에는 단청기술자가 두 세명에 불과할 정도로 단청기술의 맥이 거의 끊겨있으며 그나마 새로 하는 단청조차 전문가가 아닌 대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쪽 불교계가, 전쟁에 다 부서지고 그나마 61곳이라도 남은 북한의 사찰보수에까지 관심을 넓히는 일은 부처님제자로서 당연하고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렇게 뜻있는 불사에 잡음이 들린다. 어느 단체가 주도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통일부에서조차 불교계 내부에서 정리를 하라고 했더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보기만 해도 환희심을 낼 수 있도록 여법하게, 수백년이 지나도 여여(如如)한 단청이 되도록 범불교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논의하는 일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북쪽 사찰의 단청불사 지원이 본격화되면 재료 및 기술 전수와 함께 남쪽불교계의 신심과 수행력도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 남북의 하나된 정성으로 훈이 깃든 불사가 잘 화형되면 그 공덕으로, 과거의 유물이나 관광차원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사람들이 참다운 수행도량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민족의 통일도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징계자 사면 3월 종회 분수령”

기획실장, 멸빈자 구제 종헌개정 후 가능

조계종 총무원 대상자 파악...총 47명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이 5일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사면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멸빈자(승려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자)를 제외한 사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이에 대한 중앙종회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도현스님은 “화합차원에

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면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면 대상자는 98년 종단사태 때의 징계자로서 98년 종단사태 때의 징계자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현스님은 또 “멸빈자까지 구제해야만 사면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종법상 불가능하다. 시기는 아무래도 3월 정기중앙종회가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사면은 종헌 23조·54조 및 중앙종회법 2조에 따라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정에게 품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종헌 제128조에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 멸빈자는 종헌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구제받을 수 없다.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총무원 호법부에서도 대상자 파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98년 조계종사태 때의 징계자는 멸빈(복적 불가능) 10명, 제적(5년 후 복적 가능) 8명, 공권정지(집행기간 중 공직취임 불가) 29명 등 모두 47명이다. 그러나 멸빈자를 제외하면 사면 대상자는 37명이다. 이 가운데서도 공권정지 10년 이상자는 1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권정지가 이미 풀렸거나 풀릴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은 20여명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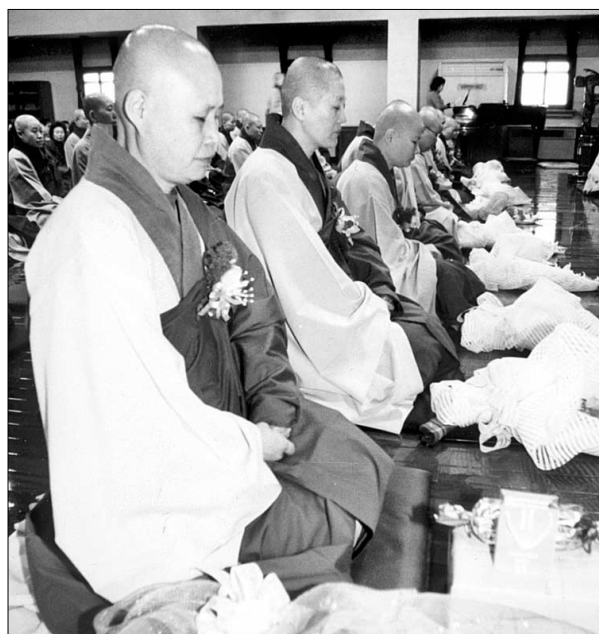
상당수 교계 관계자들은 “진정한 화합차원의 사면이 이뤄지기 위

해서는 멸빈자까지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멸빈을 제적으로, 제적을 공권정지로 낮춰도 승단 내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종단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종회의원들은, 종헌개정이 종회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그럴만한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도 아니어서 멸빈자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승단 내 문제를 끝까지 사회 재판으로 문제를 야기 시켰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종단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멸빈자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mwhan@buddhania.com



◇8일 열린 삼선승가대학 졸업식 모습.

사미 108·사미니 159명 배출

조계종 18개 승가대학 졸업식

지난 6일 열린 청암사 승가대학 졸업식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승가대학(강원)이 2월 중순까지 일제히 졸업식을 갖고 사미 108명, 사미니 159명 등 모두 26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청암사에 이어 동학사, 운문사, 봉녕사, 삼선 승가대학 등 사미니 승가대학 5곳은 8일과 13일 졸업식을 각각 거행하고 모두 159명의 사미니를 배출했다.

해인사 13명, 송광사 19명, 통도사 13명 등 모두 108명이 졸업하는 13개 사미 승가대학은 2월 15일까지 졸업식을 각각 거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졸업한 사미니들은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갖추게 되며, 오는 4월 예정인 4급 승가고시를 통과해야만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한명우 기자

서류제출 재요구 불응엔 압류조사 봉은사 조사특위

조계종 중앙종회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에 불응하고 있는 봉은사에 대해 14일까지 서류제출을 재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호법부를 통한, 서류를 압류해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봉은사 조사특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특위 전체 감사를 비롯해 특위 소위원회 감사 등 몇 차례의 감사를 시도했으나, 봉은사측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

봉은사 특위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임시종회에서 그간의 특위활동을 보고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수도권 50여사찰 포교현황 조사

조계종 포교원, 결과토대 실천과제 선정

조계종 포교원이 우리나라 인구 50%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포교 활성화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은 수도권지역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포교현황 조사를 벌여 단위 사찰의 포교역량을 계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도권 포교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15~18일 직할 사찰 가운데 서울·인천·경기도 등에 위치한 50여 사찰의 포교현황을 파악한다. 조사항목은 전체예산 중 포교예산 비율, 포교프로그램 운영 여부, 신도·포교단체 구성

및 활동, 신도기본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2월까지 포교 모범사찰의 정책 개발자 10여명으로 수도권 포교연구팀을 구성,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포교방향 설정, 포교프로그램 개발, 실천과제 선정 등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근간으로 시범사찰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수도권 포교를 담당할 수도권포교위원회(가칭) 구성과 개발 프로그램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신년포교 전진대회 개최 조계종, 대전 스파텔서

조계종 포교원은 4~5일 대전 스파텔에서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갖고, 새해 포교의 원력을 다졌다.

대회는 조계종 산하의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 30여 개의 신도·포교 단체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원의 올해 포교사업 기조와 중책에 대한 설명, 각 단체의 새해 사업 계획, 단체장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 한해를 ‘지역포교 활성화’의 해로 선포하고, 본말사 포교활성화를 위한 포교행정 구축, 신도교육 체계 확립, 신행종합정보망 구축, 국제포교

기반 구축 등 7개 핵심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대전=김철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환경수호에도 ‘화합대중’

현대불교 포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발행·편집인 : 김광삼 www.buddhanews.com

인쇄인 : 김규석 www.buddhania.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